

한국외교가 ‘불안’하다

이재명식 ‘실용외교’에 트럼프·각료들 난색



이규진

총괄부회장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불안 불안하다. 그동안 한국외교의 핵심 중추(pivotal)였던 한·미 동맹외교가 흔들 흔들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한테 너무 많이 갈취당해 왔다”는 막말이 거침없이 나오는가 하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의 운명이 달린 관세 통상협상 차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일방적인 회담 연기 통보를 받는 등 미국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분이 좋지 않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혈맹이라던 양국관계는 이제 먼 옛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는 트럼프의 ‘미국을 더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광풍이 그 근본 진원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볼 때 결코 친구일 수 없을 것 같은 정제 모호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도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바로 ‘신뢰’문제다.



한미 간 ‘2+2 통상협상’을 위해 지난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회담 연기 소식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없어 ‘국익’ 해쳐 위기의식 갖고 꼬인 한미관계 풀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 인사들 입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말이 있었다. 바로 “함께 갑시다”(Let’s go together!!)였다. 지금은 “서로 믿읍시다”(Let’s trust together!!)로 바뀌었다. 상호 신뢰 관계가 깨졌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이틀만에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가 어렵게 이

뤄지긴 했지만 바로 전날 백악관에서 나온 당선 축하 논평 내용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 당선 축하인사에 담겨진 이 생뚱맞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MAGA 진영 핵심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 말이다. 바로 ‘이재명은 중국에 가깝지 않느냐’(親中派)는 ‘오해’ 아닌 오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라는 둥 음모설을 내 비쳤던 MAGA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뒤엔 “(모택동)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은 망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식을 단순히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묵살할 수 없는 것이 그 뒤에 트

럼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6~17일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 초청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면당해 만나지 못한 것이 불길한 징조였다. 이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되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재명 대통령 첫 외교행사에서 벌어진 것이다.

한국 외교에서 가장 핵심인 대미외교가 계속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집권세력의 실책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여기 가서 ‘썰썰’, 저기 가서도 ‘썰썰’하며 된다”고 이른바 ‘썰썰외교’를 천명한 바 있다. 도대체 ‘눈치외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부외교’를 말하는 것인가? ‘아부외교’의 천재 일본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런 아마추어 극치의 인식을 내비쳤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뿐인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달 10일 공개회의 석상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말이야 맞고 시원한 말이지만 이런 과격한 용어를 동원한 비판이 미국 측에 전달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외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2면에 계속〉

알림

가을 역사문화 탐방 9월26일 갑니다

프레스센터 앞 오전 8시30분 출발
강원도 양구 6.25 전적지 일원
‘軍의 대민 소통과 言路 구축방안’ 세미나

대한언론인회 2025년도 가을철 역사문화 탐방은 9월26일(금) 강원도 양구로 떠납니다. 오전엔 양구 문예회관에서 ‘軍의 대민 소통과 言路 구축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 참가하고 오후엔 전적지 일원을 둘러 볼 예정입니다.

1. 출발 일시: 2025년 9월26일(금) 오전 8시30분
2. 출발 장소: 프레스센터 앞 (신동아 관광버스 3대 대기)
3. 가는 곳: 강원도 양구군 6.25 전적지 일원
4. 참가 신청: 8월 18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
5. 인원: 선착순 120명
6. 기타: 출발 당일 오전 8시20분까지 탑승 완료
프레스센터 앞에서만 탑승 가능

살단 대한언론인회

대한언론 특별기획 〈기사17면〉

박정희 경제 기적 재조명

“자유민주주의 핵심 이념 지켜져야”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 현충원서 합동 추모식

자유헌정포럼과 대한언론인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이승만바로알기 국민연합(대표: 변정일)’이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를 맞아 7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변정일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승만 박사의 뿌리 깊은 신앙과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정신, 국권회복과 반공정신,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숭고한 업적은 오늘날 선진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면서 “이승만을 바로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믿음 아래 연합을 결성하고 추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단체는 ▲이승만건국대통령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회장 변정일) ▲자유헌정포럼(상임대표 김의제)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 ▲민족중흥회(회장 정재호) ▲한미연합회(회장 송대성) ▲ONE KOREA FOUNDATION(대표 유재풍) ▲나라지킴이교연합(회장 임주성) ▲국가대개조네트워크(김학성)



▲7월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이승만건국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이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 변정일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뉴데일리 캡처)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 ▲한반도 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 ▲대한민국지킴이 리박스쿨(대표 손효숙) ▲서울평생교우회(회장 남기웅) ▲한미동맹 이승만재단(회장 노영애) ▲한국수중협회(대표 홍성훈) ▲독도사랑국민연합(대표 황대영) ▲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최종대) ▲자유와 연대(대표 최종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표 김근

태)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대표 이창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 이규조) ▲국민희망시대(회장 손한나) ▲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공동대표 박웅범) ▲한국주권자연맹(대표 이지안) 4·18우남포럼 25개 단체(무순)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리= 서옥식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마무리씨 권영섭



among nations) 저서를 펴내 미국의 세계 지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자주외교’ ‘실용외교’ 등 낭만적인 사고에 사로 잡히면 국익(國益)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美 국방장관 “양다리 외교 용납 못해” 경고

〈1면에서 이어서〉

통상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두 번씩 방문한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조차 하지 못한 외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나는 반미주의자’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그러려니 하고 외면이라도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인사들은 동맹인 세계 최강국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외면할 수도 없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실용외교’라는 말로 포장해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다. 세계 패권을 놓고 G2(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명정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지난 5월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ASC)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동맹국들에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양다리 외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외교에서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너는 누구편이냐고 따지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주창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더 가깝게 지내겠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우리 측이 카드로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연계해 전시작전통제권(戰作權) 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작권은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분단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함께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 실현된 역사적인 과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한국 안보의 일정 부분 책임을 미국이 의무적으로 떠안게 한 것이다. 방위비 문제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지금이 전작권 회수의 적절한 시점인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전작권 회수가 주권국가의 체면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軍의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가는 세심히

따져 보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함부로 꺼낼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전력에 맞설 수 있도록 상응하는 군사력 증강과 군사정보 획득 그리고 인적 능력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20조~25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힘을 바탕으로 한 권력정치”가 전 세계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독일계 미국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교수가 1948년 <국가간의 정치>(Politics

대한언론인회, 아사히신문과 교류

9월 1~4일, 오사카·교토방문

대한언론인회 장석영 회장 등 국제교류단 일행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2025년도 국제언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3박4일간 일본 오사카 및 교토를 방문, 현지 언론사 등과 교류협의를 한다.

교류단은 오사카에서 아사히신문사를 방문, 현지 언론인과 언론문화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사카부(府)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를 예방하고 언론을 통한 한·일 문화교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창립 후 첫 국제교류 사업으로 지난해 라오스를 방문,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문화체육관광부 포시 케오마니봉 차관을 예방, 한·라오스간 언론문화교류에 합의했으며, 이어 라오스 일간 영자신문인 비엔티안 타임스를 방문, T.듀앙사방 주필 겸 편집국장, S.빌레이사크 부국장 겸 문화부장을 만나 대한언론인회와의 정보교환과 양국 언론인의 교류 방문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망국으로 가는 이재명 초대 내각

김총리 포함 9명 현역 국회의원... '3無청문회'



이도선

본회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의 첫 조각이 소동 끝에 마무리됐다. 일찍이 새 정부의 조각이 이렇게 험난한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결국은 지키지도 못한 '5대 인사 기준(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으로 매우 요란했으나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문제적 인간들을 다 모아 놓은 허접한 내각이다.

국회를 장악한 여당 덕분에 장관 후보자 2명만 낙마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로 보건대 나머지도 모두 낙제감이다. 그야말로 망국으로 가는 조각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탁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문제투성이다. 최근 5년간 소득과 지출의 차액 8억여 원의 출처가 해명되지 않았고, 불투명한 자금 거래나 후원금 쪼개기와 자녀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자료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야당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등 청문회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탱탕 청문회'를 만들었다. 야당은 "전과 4범 대통령에 전과 5범 국무총리라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지명 29일 만인 지난달 3일 김 후보자를 총리에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인 지난달 11일 조각을 끝냈다. 새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19명 중 8명(정동영 통일·정성호 법무·안규백 국방·윤호중 행정안전·김성환 환경·강선우 여성가족·김윤덕 국토교통·전재수 해양수산)이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이다. 전직 의원(권오을)이 배치된 국가보훈부까지 합해 입법부 출신이 9명이고, 김 총리까지 치면 무려 10명이다.

역대 정부의 2~5명 수준을 압도한다. 이쯤 되면 사실상의 내각제로,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TV캡처)

'1당 독재를 굳혀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기업인 출신이 4명(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김정관 산업통상자원·한성숙 중소벤처기업·최취영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보좌관 갑질'에 이어 터져 나온 '예산 갑질'에 발목이 잡혔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강 후보자가

지어 제자 논문의 핵심 자료와 아이디어를 무단 인용 또는 전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 표절 못지않게 자녀를 미국의 고급 사립학교에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것이 논란을 키웠고, 나이스(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 법정 수업일수 같은 기초적인 사안도 숙지하지 못해 교육 행정 수장으로서 함량 미달이란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 수장인 본인의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에 투자해 사익을 추구한 의혹이 제기됐고, 인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한 것이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농지의 전 소유자이자 배우자의 지인이 농사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내각제... '1당독재' 삼권분립 훼손 강선우 후보자 '현역의원 첫 낙마' 기록

문화체육관광)이고, 관료 출신은 3명(구윤철 기획재정·조현 외교·정은경 보건복지)이며, 여성이 5명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도 김 총리와 마찬가지로 온갖 의혹과 추문이 쏟아졌지만 압권은 끝내 중도 하차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재선인 강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을 46명이나 갈아치운 것으로 밝혀졌다.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같은 잡무와 '10분마다 울리는 욕문자와 고함' 등 연일 폭로된 갑질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게다. 이와 함께 자녀 위장 전입, 의심쩍은 재산 형성과 증여, 세금 누락, 박사 논문과 보고서 표절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이 들끓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황당한 논리로 강 후보를 감쌌고, 이 대통령도

본인 지역구(서울 강서갑) 내 해바라기센터 설치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폭로했다.

정 전 장관은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한 끝에 예산을 되살렸다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갑질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자 '현역의원 첫 낙마'라는 카드를 꺼냈다. 강 후보자 사건 때문인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갑질 자정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 역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연구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됐다. 박사 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에서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됐고, 심

이박에도 도덕성과 자질 부족, 표절, 위장 전입, 세금 누락, 가족 특혜, 이해 충돌, 안보관 결여 등의 결격 사유들을 안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수두룩했다. 그런데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조각에 대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말했으니 아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이번 조각을 계기로 김 총리의 '3무(無) 청문회(무자료, 무증인, 무대응)'가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로 굳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후보들은 자료도 안 내놓고 버티고, 증인·참고인 채택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의혹이 제기돼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막상 청문회에서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거나 아예 해명도 없이 넘어갔다.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그만'이란 심리다.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동서고금의 격언을 외면해선 어떤 정부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검찰청 폐지’는 입법아닌 개헌 사항

법조계, 새정부 ‘검찰 개혁 4법’ 헌법위반 소지 지적



전의식
본지 편집위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그의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자기는 고마운 이들을 칭할 땐 ‘님’자를 붙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경칭을 생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직역 중 김씨가 빼먹지 않고 ‘님’자를 붙인 직역은 딱 하나 있는데 경찰도, 변호사도, 판사도 아닌 검사라고 했다.

경찰은 가해자 이름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고,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은 후 낮빛을 바꾸며, 법원은 시종 일관 권위적이고 냉담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죄송하다”는 가해자를 향해 “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죄송해야 한다.”고 꾸짖고, 혹시라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엔 사과하고, 엄정한 재수사를 해주며, 각종 지원제도까지 알아봐 주었다고 했다.

김 씨는 권력자들의 눈엔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만 보이겠지만, 자기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대리해 싸워줄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부터는 경찰의 법리 오해 등으로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수사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입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그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검찰청 폐지’는 ‘입법 사항’이 아닌 ‘개헌 사항’인데다가 잘못 개혁(改惡)이라도 하는 날에는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기 쉽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검찰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하자고 주장을 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검찰 개혁 4법’ 즉, ‘검찰청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및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 ‘서 있는 눈’ 조형물.

했으면 한다. 기존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새 제도가 기존제도보다 반드시 더 잘 작동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마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회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일부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전문위원회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률에서 이를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없이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

검찰 ‘수사와 공소 경험’ 전문 지식 존중돼야 검사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분리 논의는 필요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동안 검찰이 하던 업무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나누어 담당하게 하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남용한 데 따른 폐해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가진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 아닌가 한다.

법조계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시도가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 89조 제16호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

써 검찰총장이라는 국가기관과 검찰총장이 대표하는 검찰청을 헌법이 국가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청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로 폐지하려는 것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새로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고 그들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위헌소지가 있는데도 마구잡이로 검찰청을 폐지하려 든다는 것은 잘못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오랜기간 경험을 통해 축적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은 존중돼야 한다. 70년 이상 운영된 국가의 기본 제도를 변경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

청구권이 분리가 가능한 개념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상호 유기적 관계인데, 이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진주 씨가 말한 것처럼 검찰이 가진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국수위 설치법에서도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5명 중 4명을 행정부처가 추천하도록 한 것은 국수위원을 구성할 때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결론적으로 ‘검찰청 폐지’는 입법 아닌 개헌사항이며,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해야

공직 선거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줄줄이 무기연기



장석영
본회 회장

시인 김수영(金洙映)의 <풀>이란 제목의 시가 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드디어 울었다/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사람들은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줄줄이 무기 연기하는 것을 보고 이 시를 빗대어 ‘바람보다 먼저 눕는 사법부’라고 비아냥댄다.

권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되는가? 미국 정치학계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1950년 대부터 권력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첫 번째가 가만히 뚫으면 하지 않았을 것을 하게 만드는 차원, 두 번째는 내버려 뚫으면 했을 것을 하지 않게 만드는 차원, 세 번째가 굳이 하지 말라고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게 하는 능력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절부터 개인 팬덤과 당(黨)을 통해 1.2차원의 권력을 누리더니 대선 승리가 멀지않아 보일 때부터 대통령이 된 뒤까지 가장 높은 차원인 ‘알아서 기는 힘’까지 손에 넣은 것 같다. 그 단적인 예가 법원의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줄 연기다.

맨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어서 위증교사사건, 대북송금사건, 대장동 사건, 그리고 최근엔 법카유용 의혹사건의 재판부도 줄줄이 그 결정을 따랐다. 대선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투표당일 출구조사에서 여론조사까지 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달랐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의식하기도 했겠지만, 새 권력 앞에 알아서 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전(全)방



김여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7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위적 정치공세는 대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돌아보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등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막겠다는 재판 독립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5년째 자국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총리를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건 이스라엘에서도 전

번 대(對) 이란 전쟁이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란 공습을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스라엘 법원과 비교가 안 된다. 권력에 대한 통제의 유일한 가능성은 사법부뿐인데 그마저 정치권에 굴종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에서 소추(訴追)를 어디까지 해석할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최종적인 법령해석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뒤로 빠졌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던 기개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얻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정치적 압박’

법조 원로들 시국 선언…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의 정치적 압박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그 때는 독재정권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그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없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여러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던 사실에 비춰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일은 아니다.

여북했으면 이번에 법조원로들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했겠는가.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만 강하게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성역이 아니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다만, 현재 상황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의 비리가 문제되는데 이를 감싸려 한 게 아니다. 12심이 널뛰기 판결을 하자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게 비리인가?

사법부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레가 없던 일이다. 그러나 해서 안 될 일도 아니다.

성문헌법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기본법에는 현직 총리의 소추와 재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재판은 우리나라처럼 14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하는 등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바람에 1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원은 네타냐후가 기소된 이후에만 세 차례의 총선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

화가 난 네타냐후는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은 ‘사법부의 정부 견제를 제한하는 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의 지지율은 추락했고, 사임 압력은 높아졌다.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가 활로를 찾은 것은 이

될 수 없다.

얼마 전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 지방선거 투표율이 12.5%로 추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선 부정선거를 옹호한 사법부의 판결에 절망한 유권자들의 투표 거부 때문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앞서 차베스 정권 때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12명 전원을 충성파로 채웠다.

그 뒤 사법권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민주주의도 붕괴했다. 다수결 입법독재를 방지하는 최후 보루인 사법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람보다 먼저 눕는 사법부’라는 오명(汚名)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속개해야 한다.☞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지구촌 초도화

경제 포커스

EU 등 각국 “더 이상 못참겠다” 결사 항전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는 상호관세로 글로벌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무역협상에 선의로 임했던 국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락가락, 좌충우돌, 조변석개 식 관세부과에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회의론마저 나온다. 이 때문인지 미국과 다른 교역국간의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도다.

한국에 25% 관세 부과…“관세 인상률 15% 넘으면 버티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1일을 기해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최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 왔다. 상호관세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이다. 이번 관세율은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이며, 협상시한도 연장됐다. 한국 입장에서선 당장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연장된 기간이 3주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30일 유예, 양국은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세는 원래대로 25%로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국내 주력 수출기업 중 대부분이 버티기가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수출 주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수출전망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10곳 중 9곳은 관세 인상률이 15% 넘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트럼프 표 관세’ 여파로 국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철강을 포함한 선박(-2.5%), 자동차(-0.6%), 반도체(-0.5%) 등 6개 업종에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각국별 상호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는 참을 수 없다”며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에 함몰된 트럼프…미국에 득이라면 우방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각국에 통보하고 있는 관세율을 보면 성실히 협상에 임할수록, 미국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평소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우선주의를 신념처럼 부르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고 뒤통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

한국에 25% 관세통보…수출전선에 큰 위협 美우선주의 트럼프 “득 된다면 우방도 없다”

무차별 관세폭탄 투하에 각국 “더 이상 못 참겠다” 결사항전 목소리

그동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가급적 비난이나 분노를 억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인상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보복 대응’이란 단어를 금기시했던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어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이번에 당초보다 5%포인트 인상된 30%의 관세를 떠안았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타결을 기대했던 유럽연합(EU)은 10%포인트나 인상된 30% 관세를 얻어맞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EU는 이미 시나리오별 보복조치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협상 타결 발표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의 수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베트남의 대미 관세율은 0%로 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당초 관세율을 11%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양국 협상이 거의 종료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어 관세율을 2배 가까이 올리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웃 캐나다는 종전 25%보다 10%포인트나 더 높은 35%의 관세율을 받아들이고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캐나다도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한국과 함께 25% 관세를 통보 받은 일본 분위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당초 관세 24%보다 1%포인트 오른 탓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건 국익을 건 싸움”이라며 “(미국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남미 최대 교역국 브라질은 더 공격적이다. 무려 50%의 관세율을 통보 받은 브라질은 똑같이 50% 대미 관세 부과로 응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요약되는 탈리오법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은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고율관세를 거론하고 있다”며 “미국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0~40%의 고율 관세를 받아 든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도 “고율 관세 부과는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고율 관

허진다. 여기서 그의 붉은색 모자에 새겨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글자가 뜻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다.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국의 무역적자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약 844억 달러를 기록, 2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세계 최강대국이면서도 이런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인을 “세계 각국이 미국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이 작금의 불균형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또 상호관세는 예정대로 8월1일부터 부과된다며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관세협상에 방위비를 끼워 넣어 미국의 7대 무역 흑자국 한국을 꺾지 못하게 하려는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③1

“주한미군 휴전선 밑에 주둔” 제의에 美 동의

한국 국회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준한 것은 1954년 1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26일 비준하자 사흘후 29일 비준서에 서명한다. 이제 한·미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발효된다. 이승만은 그러나 비준서를 움켜쥔 채, 미국이 약속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바로 제네바 회담이다.

대한민국 國父
이승만

32) 한미동맹 ②

◆제네바 회담=한국이 불참한 7.27 휴전협정에는 ‘정전후 90일 이내 통일을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한다’고 명문화되었다(제4장). 이는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승만의 끈질긴 ‘통일 보장 요구’를 미국이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한인 10월이 지나도 회담이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이승만은 즉각 ‘휴전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단독복진 통일’ 성명을 되풀이해 미국을 위협한다. 해가 바뀌어도 회담개최가 안되자 이승만은 비준서를 움켜쥐고 “통일약속 안 지키면 북진”을 외치며 그토록 갈구하던 한·미 동맹마저 통일협상 카드로 흔들었다. 아이젠하워는 “자살하려느냐, 조약 파기해도 좋으냐”고 협박했다. 이승만은 “자살도 우리 주권”이라며 버틴다. 미국은 뒤늦게 판문점에서 공산측과 예비회담을 열고 본회담을 4월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침략자 공산세력과 유엔참전국 대표들로 구성된 ‘한반도 통일협상’ 평화회담은 2개월도 안 돼 실패로 끝나버린다. 그것은 이승만의 예언대로였다. 텔레스가 “반드시 통일을 책임지겠다”며 설득할 때 이승만이 말했다. “전장에서 이루지 못한 통일을 테이블 위에서 가능하겠느냐”며 웃었던 것이었다.

역사상 처음 한국어가 공용어로 채택된 제네바회담은 시작부터 소련과 북한의 선전장이다. 게다가 북한이 내놓은 스탈린의 속임수 ‘남북한 총선’ 제안에 미국이 끌려들어가 이승만을 설득하려 들었다. “대한민국은 없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통일선거 하자”는 미국, 이승만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북한만 선거 통일” 하자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꾸물거리는 미국을 보다못해 이승만이 호통친다. “한국은 철수하라. 미국도 철수하라” 번영태 등 한국대표단은 6월15일 떠났다. 참전국 대표들도 동조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텔레스도 이승만에게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하여 또 “없어질뻔 했던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났다. 해방후 김



▲뉴욕 브로드웨이 ‘영웅 행진’ 때 마천루에서 쏟아지는 꽃가루 소나기에 모자를 들어 답하는 이승만 대통령(왼쪽). 미국 양원합동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 33차례나 기립박수를 보내는 의원들과 각계 명사 방청객들(오른쪽).



구 때문에 건국도 못할뻔 했고, 6.25로 패망직전에서 구해냈으며 이번엔 세 번째로 나라를 살려낸 이승만이다.

◆공식방미 투쟁=아이젠하워는 두려웠다. 제네바회담이 파탄나자 “휴전무효, 단독복진”을 외치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공식방미’ 초청장을 보내 간청한다.

1954년 7월29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도착성명부터 “선전포고였다.” “겹쟁이 미국이 다 차려진 밥상을 건어차서 통일을 못했다.”

미의회 양원합동의회 연설에서는 “중공을 한국군이 물리칠테니 미국

여년 별인 제2의 고향 미국, 이승만은 NYT신문, INS통신 등 친구들이 많은 언론계에 자신의 ‘통일 염원’과 ‘미국 의무’를 역사적으로 설득하는 선전전을 펼친다. ‘휴전 무효’를 선언하고 “공산당에게 항복하지 마시오. 지금 중공을 없애야 미국이 후회하지 않을 것”을 누누이 강조한다.

이런 이승만을 아이젠하워는 외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뉴욕 브로드웨이 ‘영웅행진’으로 대접한다. 비가 내리는 8월2일 맨해튼엔 2차대전 영웅 맥아더의 행진 이후 최다의 인파가 몰렸다.

었던 것이다. 왜? 이승만의 단독복진을 막을 수 있으니까...그러나 북한이 침공하면 미군은 정당방위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자동개입’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동상이몽-오월동주의 드라마, 이승만은 명연출가였다. 이로써 이승만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다. 한반도 통일은 내일로 미루어졌지만 그 내일을 위한 준비체제는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미국민에게 말한다. “붉은 중국과 싸우는 한국의 고독한 전쟁이 미국과 민주공화국들의 자유를 존속시키는 길임을 알라” (‘Why I Stood Alone’ [워싱턴 이브닝스타] 이

‘한반도 통일협상’ 제네바 회담 끝내 결렬 美 초청 받은 박박사, 美 국회 연설 기립박수

은 공군·해군 지원만 하라. 미국의 가까운 젊은이들이 다시 피를 흘리기를 원치않는다.” 기립박수 33차례는 그냥 나온게 아니다. 중계방송을 보는 미국의 어머니들이 먼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아이젠하워와 2차례 정상회담은 일 본 협력 문제로 진통한다.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일본과 상종도 않겠다”는 이승만에게 화가 난 아이젠하워는 퇴장한다. 이승만은 “저런 고약 X이 있나”하고 소리친다. 아이젠하워가 돌아오자 이승만은 “나도 바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미국민에 여론전=독립운동을 30

◆막대한 ‘원조체제’ 구축 성공=방미 후 진행된 한·미 원조협상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완승을 보여준다. 실패한 줄 알았던 방미 캠페인은 이승만이 요구한 군사·경제 지원을 거의 그대로 확보해 주었다. 한국 국가예산이 4억 달러도 안되던 시절, 해마다 원조자금 3억 달러씩 들어오는 원조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뿐인가, 한·미조약에서 이승만이 끝까지 요구했던 바 “유사시 NATO식 자동개입”을 거부했던 미국이 ‘인계철선’(Trip Wire)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즉, “주한미군을 서울 북방 휴전선 밑에 주둔시키자”는 이승만의 제의를 덩석 물

승만 기고, 1953년 8월16일자)

▶대한민국을 영구지원하는 ‘한·미 의사록’이 합의된 날, 이승만은 그제서야 ‘비준서’를 꺼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교환한다. 조약체결 1년3개월 만에 1954년 11월18일 마침내 한·미 동맹이 발효되었다. 생명 같은 한·미 동맹조차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다 얻어내고서야 본격 출범시키는 이승만, 맹수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영구 수호하려는 지정학적 전략가요, 외교의 신(神)!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아닌가.☞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궤멸위기 보수진영 탈바꿈... “깨어나라”

국민의힘, 인적쇄신·정책대안으로 당당히 맞서야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보수 세력이 궤멸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국민의힘은 리더십과 구심력을 상실한 채 지리멸렬 상태로 선장없이 바다를 헤매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고 지지도는 밑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오죽했으면 당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은 코마(죽음 직전) 상태로 대수술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표현했겠는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국민의힘 압박은 거침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해체수순까지 몰고 갈 추세다. 만약 국민의힘이 해체된다면 민주당 일당 독재로 이견 민주주의가 아니다. 만장일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 최대 위기는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그렇다고 보수가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방지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하고 다수의 강력한 숫자 힘으로 거침없이 달리는 폭주 기관차를 보수 세력은 당장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 6·3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49%, 김문수 41%였다. 8% 차이는 넘지 못 할 벽은 아니다. 한파와 강풍에 줄기는 얼고, 잎은 떨어졌지만 뿌리는 땅 속 깊이 박혀 있다.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북한의 6·25남침을 이겨내고 안보강국을 이뤄냈고 산업화로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의 씨앗을 뿌렸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된 나라를 3만 달러를 넘게 경제성장을 이뤄 선진국에 진입시켰으며 강대국에 도전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궤멸 직전의 보수라도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천막당사 정신을 되살려 창당 수준의 새 출발을 한다면 뿌리가 깊은 보수는 재결집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뉴스

고 진보정권의 포퓰리즘과 다수의 횡포에 실망한 중도층도 돌아올 것이다. 정권은 숫자의 힘이 아니라 국민 신뢰에 의해서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보수정권은 국민이 맡겨준 5년 임기

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난 6·3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3권을 완전 장악한 초강력 정부와 여당인데도 시대정신인 대통합과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시절 거침없이 질주했던 숫자의 힘을 그대로

두 얼굴이요, 표리부동이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세력의 공천 나눠먹기 정당이라면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이젠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철학과 정책으로 완전 혁신 탈바꿈해서 국민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인적 쇄신과 인재양성이 급선무다. 언제까지 대

통령 후보를 용병으로 대체할 것인가.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새 얼굴을 영입하고 대통령감을 당 스스로 키워야 한다. 유력한 대선후보가 없는 정당은 식물정당이나 다름없다. 둘째, 결기를 다지고 야성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으

진보정권 포퓰리즘에 대응 결기있는 야성 필요 정권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 신뢰로 유지된다

의 절반을 남기고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계엄은 반대해도 탄핵만은 막아야 했다. 소수 여당이라 해도 탄핵만은 저지할 수 있는 108석(현재 107석)은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세력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탄핵을 외쳤다. 윤대통령 취임 첫 해 예산안 시정연설 때 보이콧하며 아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작년 국회 연설 때 예의는커녕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고, 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일부러 야당의석을 찾아가 인사를 청해도 고개 돌리고, 악수 거부하고 심지어는 “당장 그만두라”는 막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보수 세력의 적통으로서 중심을 잡고 미래를 내다 본 해안과 고도의 차원 높은 정치 전략으로 지혜롭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구심점 없이 비틀거리다가 다수의 횡포정치를 거리낌 없이 자행한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

밀고 가고 있다. 집권 한 달 만에 계엄·채상병·김건희 3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6·3대선 때 도와준 진보사회단체의 대선청구서인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 때 “홍청망청 쓰는 권력남용 예산인 특별활동비 없앤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한 달 만에 하반기 대통령실 41억원 등 경찰·검찰·감사원 등 특활비 105억원을 31조원 추경예산안에 슬쩍 끼워넣어 통과시켰다. 불과 몇 달 전에는 필요 없는 특활비가 정권을 잡으니 갑자기 필요해졌는가. 먼저 국민에게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과부터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통과시켜야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어물쩍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야당을 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요, 위선의 극치요, 파렴치한

면 아무리 수적 열세라도 결기를 다지고 야성인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에서 극히 몇 의원만 투쟁력을 보이고 대부분의 의원이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3백여 척의 적함을 물리쳤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흔히 보수는 정책이 없고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소득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소외된 다중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넷째, 영남당에서 벗어나 전국당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민주당과의 의석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를 좁히지 않고는 다시 집권하기 어렵다. 다섯째, 시대정신에 맞는 집권철학을 정립하고 하향식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고 선전홍보에 집중하여 국민과 소통으로 교감해야 한다. ☞

상법개정 신호탄 ‘입법독주’ 시작됐다

민주당, 전 정부 거부권 30여건 재입법 추진



배병휴
본회 회우
전 매일경제 주필

‘힘센’ 집권당의 쟁점법안 강행 입법이 어디까지 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재계가 불안과 우려를 표시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국민의힘 107석 가운데 절반이 반대, 기권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 거여의 입법 강행 의지에 눌러 ‘전향적 검토’라는 말로 굴복, 동의한 셈이었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이사회 내 구성비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 의결권의 3% 제한 등 재계가 반대한 규정들이 모두 반영됐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 공포 즉시 발효하지만 독립이사 규정과 3%룰은 1년간 유예기간 뒤에 시행한다.

거여는 이같은 상법개정안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개혁 입법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법개정을 하자마자 쟁점 사항으로 유보시킨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방안 등의 추가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국회 법사위가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을 초청한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가진 것이 추가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였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에 입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곧이어 지난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40여건 및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공약에 올라있는 법안들까지 모조리 재입법, 조기입법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거여의 힘을 앞세운 입법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거여가 작심한 길로 가겠더니 바로 ‘일당독재 입법’ 아니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 무엇인가.

상법개정안에 따른 재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8일,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 소위는 이 대통령의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후 곧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입법까지 준비를 마쳤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의무

자사주 소각론이 나온 것 아닌가.

민주당은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가 넘는 기업이 216개사에 이른다고 보고 이들이 모두 ‘나쁜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노라고 해석한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거여는 경영계의 불안과 우려를 듣기보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함성과

으로 매입토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농업4법도 재입법을 진행시키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으로 ‘농망법’(農亡法)으로 불렸다. 그러나 윤 정부가 임명한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은혜를 받자마자 농업 희망을 가져오는 ‘농망법’(農望法)이라고 고쳐불러 곧 입법 처리할 전망이다.

대체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 추진은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 편향성이 특징이다. 당시 소수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거여의 입법독주를 막을 힘이 없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매달려 입법 저지시킨 법안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바뀌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걱정도 없어진 가운데 힘의 입법을 밀어붙이니 결국 ‘일당독재 입법’ 아니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이대통령 공약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입법’ 폭풍 경제계, 9월 ‘자사주 소각’ 입법 경영권 방어 고심

화한 것이 골자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부터 주장해온 정책을 집권하자마자 입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 경제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서둘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 5000 특위가 대기업의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소각 입법을 9월 국회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경영계의 근심, 걱정이 말할 수 없지만 거여가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 지금껏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마저 소각 처분한다면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식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자산 수단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는가. 바로 여기서 대기업의

지지 국민들의 여론편을 선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권 방어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도입 등을 호소했지만 힘이 넘치는 거여에게는 ‘듣는 귀’가 없다는 응답인 모양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하며 약속한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입법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사 근로자에게 원청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한다. 이는 사측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노조에게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면허법’으로 비유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근무,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 등도 약속했다.

또한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

이를 현행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춰 보면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중벌감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념회견에서 현 ‘여대야소’ 정국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거여의 입법 독주마저 국민의 뜻인 양 두둔한 인상을 남겼다.

거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민생회복 추경심사에서도 이 대통령 정책 브랜드인 소비쿠폰 대폭 증액, 코로나 부채 및 개인 빚 탕감 등 포퓰리즘 선심을 펼쳤다. 이어 지난해 말 예산심의 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대통령실, 검·경, 감사원 등의 특활비 104억원을 일방적으로 부활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이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지만 못 들은 척했다.

비록 ‘여대야소’가 총선을 통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입법이고 예산이고 자기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천부의 독재 권한’이란 말인가.☞

특파원 수첩 런던 ④

‘법과 원칙’ 지킨 대처리즘의 승리

부당한 노조 요구에 엄정 대처... ‘영국병 치유’ 교훈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골칫거리다. 영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는커녕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오래 지속된 파업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파업으로 하루가 시작돼서 파업으로 하루가 지는 나라. 노조의 파업으로 날이 새는 ‘유럽의 병자(病者)’, ‘박물관 경제’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파업에 일대 전기를 맞는 중대 사건이 일어났다. 1984년 영국에서의 석탄노조 파업은 이 나라 경제의 진로뿐 아니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1년에서 이들이 모자란 3백 63일간, 영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파업에 가담했던 광부들이 하나 둘 대열에서 이탈하더니 급기야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노조원의 숫자가 과반을 넘어 파업이 자동 와해된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자 임금도 못 받으면서 노조회비만 내야하는 노조원들이 한 명, 두 명 직장으로 돌아오더니 급기야는 과반수 이상이 일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파업이 무산된 것. 이에 따라 전체 노조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고 힘의 균형이 정부쪽으로 급격히 이동,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의 역사적 패배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전국 광산노조(NUM)의 파업은 지난 1984년 3월 5일 국영 석탄 공사가 수입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심부(深部)탄광 20개 광구를 폐쇄하고 그 종사자 2만 명을 정리 해고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는 영국경제를 ‘박물관 경제’로 만들 수 없다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광구의 폐쇄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논리라며 강력히 대처, 노조의 와해를 이끌어냈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탄광은 폐쇄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

그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만도 35억 파운드(당시 환율로 3조5000억원), 국민총생산에 1.2%의 마이너스 성장이란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처정부는 영국경제의 체질 개선뿐 아니라 10년 전인 74년 에드워드 히스정부를 무너뜨린 노조와의 투쟁에서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파업으로 태양이 뜨고 파업으로 태양이 지는 나라’, ‘통치 불가능한 상태로 표류 중’(프랑스 르 몽드紙 표현)이었다. 그러나 광부파업 와해 이후 노사분규는 86년에 불과 877건으로 격감하더니 그 뒤 10분의 1로 감소, 대처리즘의 승리를 웅변한다.

노조 파업에 편승, 집권 노리던 야당에
—大 타격

대처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광부와

경제 체제 확립 등. 지방자치제도에 과감히 메스를 가해 공무원을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도 그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다.

그는 또 ‘영국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온 사회보장제도를 과감히 수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 경이 주창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때문에 3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종류가 다양하여 재정 낭비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업수당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 일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대처 수상은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단순화시켜 요(要)구호대상자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어 나갔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여왕의 율하이라 1979년 대영제국을 이끌어가는 최초의 여수상이 된 그는 83년, 87년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 보수당 당수로서는 최초의 ‘3선 수상’, 11년 6개월 최장수 총리재임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회보장 제도수술...12년 재임 최장수 총리

‘타협의 원칙’ 지키되 ‘원칙의 타협’은 금물

“지구 半바퀴 돌아오는 日本 車와 경쟁, 왜 못 하나?”

그는 또한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외국 자동차 때문에 영국 자동차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특히 일본차의 수입을 규제하자는 건의가 올라오자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들어오는 자동차와 경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영국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다그치기도 했다.

불합리한 노조 주장에 결연하게 대처하며 법과 질서를 확립하려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한 나라의 진로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본보기임에 틀림없다. 대처 총리의 집권 전 한 해 3,000여 건에 달했던 노사 분규로 인해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제국’은

업을 와해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외에 노조의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노조 회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노조 이탈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파업 여부를 모든 노조원의 합법적 찬반 투표없이 일부 대의원들끼리 협의 결정, 파업의 정당성이나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파고 든 것이다.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높여준 대처 총리는 광부 파업 종식 이후 인기가 상한가로 치솟는다. 노조 와해에 탄력을 받은 대처 정부는 그 뒤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을 가속화, 개혁의 과제를 차근차근 이루어 낸다. 국영기업의 연이은 민영화, ‘빅 뱅’으로 요약되는 금융 규제 철폐, 시장 친화적인

대처 수상의 영국병 치유 방식은 대한민국의 노사정 관계에 커다란 교훈을 준다. 노사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은 지키되 원칙자체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노란 봉투법을 비롯,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보상의 강화 등 노동계 요구를 거의 들어주며 노조 위원장 출신을 해당 장관에 발탁했다. 반면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 개선 등 경영자 측 요구사항에 대한 공약은 찾기 힘들다. 원칙 대응만이 ‘생떼파업’, 불법 파업을 잠재할 수 있다.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대북정책, 환상에 빠지지 말자”

북한 김여정 담화 통해 남북 대화 관심 시사



염동재

전 국정원 1차장·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7월 28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는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면서 “리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냄새를 피우며 수선을 떨어도 우리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공식적, 공개적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 재개에 기대를 갖게 된다.

이번 김여정의 발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몇 가지 화해 제스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후인 6월 11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이 전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자주파로 알려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23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 장관에 지명했다. 7월 3일에는 남북자가족모임이 통일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키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언급해 남북대화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표시했다.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북한이 기대 이상으로 신속히 호응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 한·미연합훈련과 접경지역 사격훈련 중지, 개별 북한관광 및 민간인 대북 접촉 허가 등의 문제들도 거론됐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이재명도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다



이재명 대북 유화정책에 반응을 보인 김여정. 남북대화 재개 가능할까.

음 날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김여정 담화문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 빼라 살포 중지, 개별적 관광 허용 등을 거론하며 “리재명 정부가 집권 직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 분야 대선공약은 ①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표를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정세 판단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착각이다. 독일의 경우도 평화가 선행되어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서독과 서방의 국력 우위가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과 화해·협력하면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북한 핵은 김일성 세습정권의 유일한 업적이고 북한 정권을 지탱시켜 주는 유일한 힘이고 북한 주민의 복종을 이끌어 내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따라서 김일성 세습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일성 세습 붕괴’ 되기 전 북한 핵 해결 불가능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후 북한 대남방송 중단

후부터 나름대로 ‘성의 있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남북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 구애(求愛) 받아 몸값이 한껏 높아진 상태라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과 군수물자 지원에 목을 매는 형편이고, 중국은 북·러 밀착을 우려해 대북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주 유엔 북한대표부는 트럼프의 서신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껏 몸값이 높아진 김정은이 적어도 금년 내에는 우리와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조치에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해 온 것은 ①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친북적 담론의 불씨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고, ②이재명 정부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취임 초에 보다 적극적인 친북정책들은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③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평화 체제 구축, ②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③남북관계의 복원 및 화해·협력 체제로의 전환, ④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2022년 제20대 대선 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및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①통일은 먼 장래의 일로 남겨두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평화 공존에 주력하고, ②북한 핵 동결과 유엔제재를 맞바꾸는 스몰 딜 추진, ③9·19 군사합의 복원, ④남북대화 및 대북 경제, 인도적 지원 재개, ⑤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 ⑥전작권 환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녹록한 상태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협상가들은 ①북한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②30~40년 이상 협상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이고, ③궁핍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진 자산(resources)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매우 익숙하고, ④목숨을 걸고 협상목

셋째, 우리의 선제적 양보와 포용이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다. 서독의 경우도 동독정권의 변화를 위해 동방정책,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으나 동독 공산정권은 변하지 않았고, 독일통일은 동독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망해서 가능해졌다.

넷째,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북한 간첩의 침투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에게 남한 적화는 가장 효과적인 안보 방책이고 경제발전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믿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여러 정권이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했으나 북한 정권은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의도라 생각했다.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최대의 안보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

이재명 정부, 국가 정통성 정립 시급

전국 77주년 맞아 현대사 교육 정상화 이뤄야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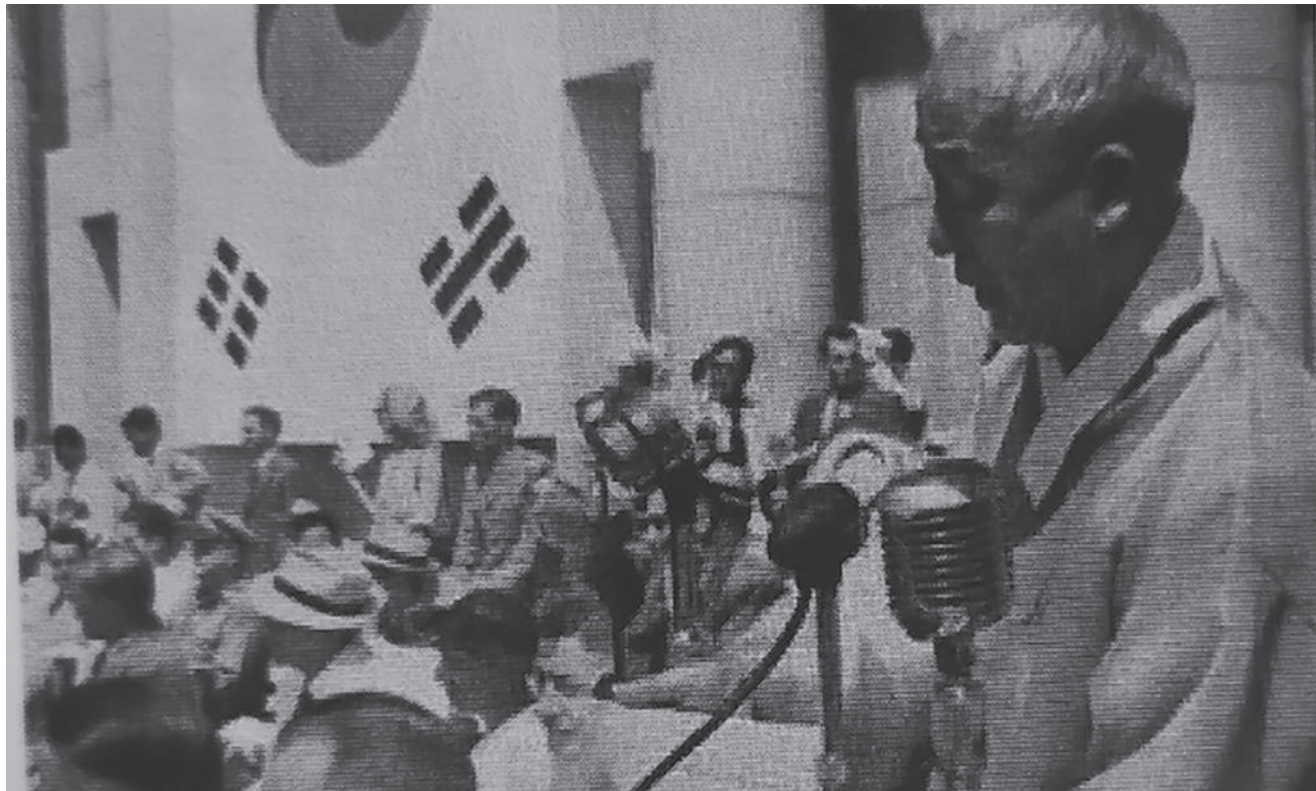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2025년의 대변혁에 많은 사람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자문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건국 이념이 종언(終焉)을 고하고 중국·북한과 유사한 전체주의 체제로 바뀌는 체제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 위기 의식은 대통령 탄핵 등에 의한 변칙적인 정권교체 반복, 삼권 분립 붕괴, 정적 적폐몰이 등 혁명적인 변혁과 신흥 파워엘리트의 부도덕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상과 청사진 없이는 국가는 지속 발전할 수 없으며, 국가 운영 원칙에 대한 국민의 합의 없이는 국민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분열·증오·반란을 선동하는 좌파의 프로파간다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퇴색되고 국민 통합은 무너지고 있다.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전복 세력의 음모를 고발하고 잃어버린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찾는 교육 정상화 등 대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선진화를 제일 먼저 성취한 나라다. 6·25 전쟁 후 중국 반방 후진 국가에서 벗어나 9번째로 1조 달러 무역 국가가 되고, 일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의 3050 클럽에도 일곱 번째로 등재됐다. 일제(日帝) 침략·6·25 전쟁·반체제 세력의 전복전(顛覆戰)·저질 정치의 분탕질·외래 저질문화 범람 등의 모순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현대사는 격동의 연속이었다. 77년 격동의 역사에서 1948년 건국, 1953년 6·25전쟁 극복, 2021년 선진국 진입은 ‘하느님이 보우하신’ 기적의 역사였다.

대한민국 건국은 빼앗겼던 조선왕



조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정치 혁명이었다. 사회와 당쟁으로 얼룩진 조선왕조체제

적 목적으로 왜곡된 77년 대한민국사를 사실대로 바로잡아 좌·우 갈등을 풀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

판했다. 71년 전 “중공과의 전쟁 공포가 서울이 워싱턴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승만의 경고

해방이후 좌·우대립 갈등 풀어야 국민통합 중국 서해공정·北核경제…한·미동맹 강화 필연

와는 전혀 다른 근대 국민국가의 출발이었으며, 한국인이 신민(臣民) 백성(百姓)이 아닌 국민(國民)으로 살아가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386운동권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정통성을 부정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하지 주한미군 총사령관은 미·소공동위원회 합의나 좌·우 합작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스탈린의 한반도 공산화와 미군정청 하지의 좌·우합작을 비판한 이승만의〈정읍선언〉에 대해서도 하지는 “높은 망나니의 궤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방했다.

대구 폭동, 4·3 사태,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등을 민중의 변혁 지향 운동이라고 좌파 정치인들은 주장했으나, 북한 지역 소련 군정사령관 슈티코프 상장의 일기에는 당시 남한의 폭동을 소련 군정이 직접 지휘하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치

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누적된 좌·우 대립 갈등과 미국·중국의 세계패권을 다투는 과동의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중국의 한 판승부로 한반도에는 더 높고 더 넓은 위기의 파도가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격렬한 사회 변화의 진폭을 체험하면서 누구도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며 아무도 미래를 전망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는 아노미 상태다. 이 불안을 잠재우고 격변의 대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77년 대한민국사 체계화는 물론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사도 빠르게 정리해서 나라의 새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민 초청으로 1954년 7월 28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이승만대통령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진영의 궁극적 승리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이 겁먹어 한반도 통일기회도 잃었다”고 미국을 비

는 2025년 미국과 중국 각축으로 현실화 됐다. 이재명 정부는 고구려·백제·발해의 멸망을 기억해야하며 중국의 서해공정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1945년 한반도에 상륙한 미군은 1949년 6월29일 철수했으며,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도 휴전과 함께 철군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가 요구한 한·미방위조약 체결로 유엔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과 중국·러시아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데 전작권환수를 이재명정부가 서둘러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 이승만이 1949년 추진했던 태평양동맹 조약을 2025년 미국이 비슷한 지역동맹을 주장하고 있다. 6·25 보은 차원에서 이 군사연맹에 한국이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정부는 독도근해를 한·일공동수역으로 협약한 김대중정부 실수를 바로잡고 1965년 한·일협약에서 모호하게 처리했던 1910년 일본의 침략 사죄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

“김일성 정권을 남북합작이라고 날조”

해방 80년-건국 77년 특집 북한 교과서·역사서 정밀분석

북한 김일성은 그의 소위 ‘항일투쟁’을 내세워 우리의 근현대사를 몽땅 자신의 ‘혁명 역사’로 조작·날조해버렸다. 지금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중심의 일부 야권 정치인이나 종북주사파 성향의 학자·종교인·언론인·시민단체·노조도 조작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운동을 ‘조국해방 투쟁’으로 규정하며 독립운동으로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김일성은 이승만이나 김구처럼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 편에 서서 일본 괴뢰국인 만주(滿洲)의 실지(失地)회복을 위한 ‘비적항일운동(匪賊抗日運動)’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스스로 1932년 조국해방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고 백두혈통의 근거지라는 백두산에 총사령부를 설치, 대일(對日)투쟁을 했다는 것은 완전 조작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후 동만주(東滿洲)에서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連軍)의 일원으로 활동했을 뿐이다. 즉 192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의 폭력·살인·방화·강도·강간·약탈 조직인 마골단(馬骨團) 가입을 통한 비적활동, 1930년대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동북항일연군 대원으로 중국공산당을 위한 만주 실지회복을 위한 대일(對日)빨치산 운동, 1940년대는 일제 관동군의 공격을 피해 소련 연해주로 도주, 8·15해방 때까지 소련 극동전선군(25군) 산하 88국제보병(정찰)여단에서 소련 비밀경찰(KGB)을 위한 정보장교(대위)로 일했다.

북한은 물론 국내 종북좌파 인사들이 김일성의 최대 항일투쟁 업적으로 치켜세우며 김일성정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승만정권의 대한민국보다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근거를 말할 때 자주 들먹이는 이른바 ‘보천보전투’승리도 김일성이 주도하거나 지휘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은 김일성의 업적으로 조작해 버렸다. 1937년 6월 4일의 보천보전투(사실은 전투라기보다는 함남 갑산군 보천면 소재 일본 경찰주재소 습격사건에 불과)를 지휘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2군 6사장(師長)은 1912년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나 길림(吉

林) 육문중학교(毓文中學校)를 중퇴한 북한 김일성이 아니라 1901년 함남 해산진 출신으로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온 동명이인(同名異人) 김일성이며, 이 사람은 보천보전투 5개월여 뒤인 1937년 11월 13일 일만군(日滿軍)의 공격을 받고 길림 무송현(茂松縣) 양목정자(楊木頂子)라는 곳에서 전사했다. 당시 일본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만주군 기관지 월간 ‘철심(鐵心)’,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천보전투를 지휘한 김일성(북한 김일성이 아님)의 전사 사실을 보도했다. 동북항일연군 단위부대장들은 일본군을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기 위해 거의가 전설의 장군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했다. 실제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천보 전투를 이끈 2군 6사장이란 위장 감투를 씌워 준 것은 2차대전 후 조선을 동북아의 위성국가를 만들기 위한 소련의 계략이었다고 전 소련군 평양군정청 핵심 멤버였던 니콜라이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1901~1992) 소장 등 여러 소련군 장교들이 증언하고 폭로한 바 있다.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이 지휘하는 동북항일연군 대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천보전투를 지휘했다면 당연히 이런 사실이 중국측 기록에 있을 법한데도 지휘는커녕 참여했다는 기록조차 없다.

엄청난 조작과 날조, 미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출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이란 군대를 창설, 백두산에 총사령부를 차려두고 항일투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가. 진실을 담았다고 보여지는 1942년 자필수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백두산 총사령부 설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한마디로 조선인민혁명군은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군대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하로시마·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여 후인 1945년 8월 9일 선전포고와 함께 대일전에 참가, 조선반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8·15해방



▲보천보습격사건을 주도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2군6사장 김일성(북한 김일성이 아님)의 전사(참수) 사실을 알린 1937년 11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



▲보천보습격사건을 주도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2군6사장 김일성(북한 김일성이 아님)의 전사 사실을 알린 1937년 11월 18일자 일본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사.



▲안경끼고 호리호리한 이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조작과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다 보니 김일성 사진까지 조작한 북한 서적,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출판사인 ‘인문과학사’가 1968년 펴낸 ‘민족의태양 김일성장군’.

을 쟁취했다고 역사적 사실을 조작해 버렸다. 해방 당시 소련군 88국제보병여단 정보장교였던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군대를 지휘하기는커녕 35일이나 러시아에 머물다가 9월 19일(추석날)에야 소련 군함 푸카초프함 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원산항에 도착했는데도 이처럼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오늘날의 현 북한군(조선인민군)의 모태가 됐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조작이다. 참고로 현 조선인민군의 실제 창설일을 말하면 정권수립(1948. 9. 9), 노동당창당(1948.10.10)일보다 4~5개월 앞선 1948년 4월 25일이다. 그뿐인가. 북한 교과서와 역사서들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국제적인 선언인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해방이 김일성의 단독업적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혁명의 성지라 부르는 백두산 밀영은 처음부터 없었다. 김정일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연해주 라즈돌노예(Razdolnoye)란 마을에서 1942년 2월 16일 태어났다. 김정일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로 당시 태절을 자르고 아기를 받았던 러시아인 조산원 엘냐, 그리고 생모 김정숙의 젖이 모자라 김정일에게 젖을 먹였던 조선인 유모 이재덕씨의 증언이 있다. 김정일의 러시아 이름도 ‘유라킴’이었다.

1997년 남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전 김일성종합대 총장)는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백두산 밀영 설치는 가짜라면서 백두산밀영이란 용어는 1984년 이전

북한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중인 북한의 고급중학교 1학년(남한의 고교 1년) 교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는 김일성이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전(全)조선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남한의 국회의원에게 해당) 총선거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그해 9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을 국가수반 겸 내각수상으로 만장일치로 추대, 다음 날인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조선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김일성 초대 정부를 조직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1987)와 광명대백과사전(2007), 조선대백과사전(2001)은 물론 보도선전기관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48년 8월 남한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전체 남한 유권자의 77.52%가 투표에 참가해 1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다시 인민대표들이 북한으로 넘어와 360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아 이들이 북한지역 선출대의원 212명과 함께 헌법채택과 함께 김일성을 국가수반 겸 초대 내각수상으로 추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날조된 사실이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우리나라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이다.㉠

창간 18주년 인터뷰 전문 미디어 1호

인터뷰365

대한민국 문화를 움직이는 人物 1000人 인터뷰 수록

**제4회 대한민국인터넷대상
사회공헌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 이어령 심사위원장이 극찬한 인터뷰 전문 미디어



인터뷰365가 만난 인물



■ 非정치성 · 非이념성 · 非상업성 편집지향 ■ 꿈 · 사랑 · 감동 주는 각계 인물 입지전

인터뷰365 무한 캠페인

- 365생명사랑 캠페인(자살예방 캠페인)  [살자TV](#) 
- 매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물 '굿피플 베스트10' 선정

www.interview365.com

‘만남과 이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1966년 ‘사월이 가면’ 패티김과 길옥윤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8〉

아름다운 사랑은 이별도 로맨스다. 1960~70년대, 당대의 가수 패티김과 작곡가 겸 색소폰 연주자 길옥윤의 로맨스는 사랑도 이별도 아름다운 충격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66년 초였다. 미 8군 쇼의 팝송가수로 한국의 패티 페이지로 불렸던 패티김은 예명도 패티(본명 김혜자)로 짓고 팝송의 본고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잠시 귀국해 4월이면 다시 떠날 예정이었다. 그 무렵 길옥윤도 일본에서 귀국해 ‘길옥윤 악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둘은 가수와 밴드 마스터로 한 무대에서 자주 만났다.

4월에 떠날 패티김에게 길옥윤이 ‘사월이 가면’이라는 곡을 주면서 둘의 사랑은 시작됐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은 꿈속의 사랑/ 사월이 가면 떠나 갈 사람/ 오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라/ 세월이 가면 떠나야 할 그 사람/ 오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패티는 ‘사월이 가면’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길옥윤의 프러포즈라고 직감했다. 노래 속의 ‘사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은 패티 자신이고, 오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은 길옥윤이라는 사랑의 고백과 그래도 떠난다면 패티는 너무 무정한 사람이라고, 가지 말라는 하소연의 러브 송으로 느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은 꿈속에서도 사랑한다는 고백에 가슴이 멎었다.

물론, 패티도 길옥윤이 좋았고, 또 한 여인으로서 그런 사랑을 뿌리치고 노랫말처럼 무정하게 떠날 수가 없었다. 패티는 그대로 주저앉아 길옥윤과 콤피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둘은 뜨거워졌고 한국 가요사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또 인연이랄까, 숙명이랄까 하는 숨은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패티와 길옥윤 악단이 함께 전방 위문공연을 간 일이 있었다. 공연을 마치고 부대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 예정된 버스를 놓치고 다음 차를 기다리게 됐다. 그런데 앞에 놓친 버스가 전복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 두 사람은 만남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패티가 청혼을 했다. 처음 만난 1966년, 그해 6월 약혼을 발표해 놀라운 뉴스가 됐다. 또 약혼 6개월 뒤 12월 10일, 당시 공화당의 김종필 의장 주례로 워커히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에게 답례품으로 ‘사월이 가면’의 한정판 싱글 음반을 선사했다.

두 스타의 결혼은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보고 겪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



만남도 이별도 아름다웠던 패티김과 길옥윤. ‘사월이 가면’으로 만나서 ‘이별’로 헤어졌다.

‘사월이 가면’으로 프러포즈를 했던 길옥윤.

패티김은 뒤에 길옥윤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는 사람 좋고 술 좋아하고 마음 여린 길옥윤의 생활 습관이었다. 그 시절 연예인들은 야행성이었다. 나이트클럽, 카바레, 극장식당의 밤업소가 주 활동무대였다. 그래서 밤늦게 공연이 끝나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밤을 새고 낮에 잠을 자는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했다. 반면, 패티는 매사에 정확하고 규칙적인 여자였다. 남편 길옥윤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밤이 쌓이고 지쳐 이별을 결심하게 됐다.

여 건디기가 힘들었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세월이 가고 패티는 또 이런 말을 했다. “길옥윤씨와의 결혼생활이 아름다웠어요. 이별을 후회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이별도, 지지고 볶는 사랑만한 헤어짐이 있겠는가.

패티도 길옥윤도, 또 패티가 사랑했던 노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의 작곡가 박춘석도 내가 기자 시절 종로구 중학동 1번지 한국일보 13층의 레스

“눈 감으면 보이는 얼굴” 추억과 그리움 애잔 요즘 거칠고 험한 ‘사랑과 이별’ 뉴스 씹쓸

첫 만남에서 ‘사월이 가면’ 패티가 떠날 것을 걱정했듯이 길옥윤은 또 이별을 미리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헤어지기 2년 전인 1971년, ‘이별’이라는 노래를 패티에게 주었다. 이별을 염려하는 메시지와도 같았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 날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할 거야...” 어쩌면 그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할거야...”라고 패티를 붙들고 싶었던 노래가 아니었는지. ‘이별’의 2년 뒤 1973년, 결혼 7년 만에 두 사람은 ‘이별’했다. 길옥윤은 마음의 상처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동안 일본에 가 있었다.

패티는 뒤에 길옥윤과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했다. “1966년 3월 말쯤인데 길옥윤씨가 ‘사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줬어요. 들어보니까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좋았으니까 받아들이고 제가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곡이나 하나씩 써 보내는 그런 날들이 쌓

토랑 ‘송현클럽’으로 찾아와 사진 찍고 취재를 하곤 했다. 참으로 한국 가요사를 빛낸 큰 별들이다.

스타 이전에 나오는 친근한 사람으로 오히려 나를 만나려 했던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정겨운 사람들이다. 글을 쓰다 보면 옛 생각에 문득, 쓸쓸해질 때가 있다. 어느 시의 구절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다. 때로는 혼자서 미소 짓는 순간도 있지만, 삶이 그런 것인지, 그렇게 살았던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세월 좀 지나보니까 남는 것은 추억과 그리움 뿐이더라.

그런데 요즘, 뉴스에 비치는 사랑과 이별은 가끔 씩 스토킹이니 뭐니 거칠고 험할 때가 있다. 사랑은 만남도 헤어짐도 있고 눈물과 설렘이 있어 아름답다. 패티는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 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되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좋아하고 노래했다. 그런 사랑, 그런 이별, 아픔을 지나 지금 미국에서 아름다운 황혼을 보내고 있다.☞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우상혁, 한국육상 ‘金점프’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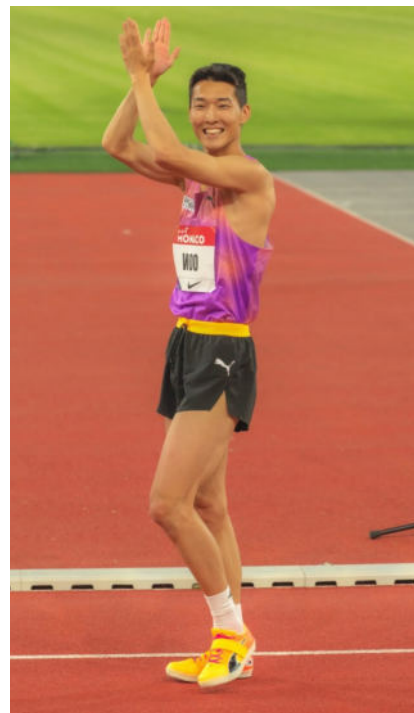
9월 도쿄 세계육상 선수권 男높이뛰기 출전

스포츠 코너

한국 육상사상 첫 세계선수권자가 나올까.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제2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9월 13~21일) 남자 높이뛰기에 나서는 ‘스마일 점프’ 우상혁(29·용인시청)의 ‘금빛 미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상혁은 지난 7월 12일 모나코의 스타드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이로써 우상혁은 올 시즌 참가한 7차례 국제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다. 우상혁의 이날 기록은 올 시즌 세계 최고기록으로 두 달 뒤 도쿄에서 열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빅 이벤트. 하지만 한국 육상은 지난 42년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다. 최고의 성적은 우상혁이 2022년 7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땀 은메달(2m 35·한국기록)이다. 한국 육상의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은 2011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이 1시간 21분 17초로 땀 동메달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달레이스에서는 미국이 금메달 195, 은메달 134, 동메달 114개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은메달, 동메달 각 1개로, 메달을 땀 세계 106개국 가운데 공동 86

난징 세계실내선수권대회(2m 31), 카타르 도하 왓그래비티챌린지(2m 29), 경북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2m 29), 이탈리아 로마 다이아몬드 리그(2m 32) 등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나 2021년 수립한 자신의 한국기록(2m 35)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9월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기준 기록(2m 33)도 넘지 못해 육상계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우



우상혁이 지난 7월 12일(한국시간) 모나코의 스타드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 도중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2m 3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9월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사진제공=대한육상연맹)

7월 모나코대회 올 세계 최고 기록

위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한국 육상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한국은 올림픽에서도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회(남자마라톤 황영조 금메달), 1996년 미국 애틀랜타대회(남자마라톤 이봉주 은메달)를 제외하면 육상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우상혁, 20kg 감량 등 피나는 노력

지난해 페이스가 좋지 않았던 우상혁은 올 들어서도 출발이 부진했다. 지난 2월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2m 31)를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대회(2m 28), 중국

상혁은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우승,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 그것도 1차시기에 2m 34를 넘어 자신의 한국기록에 1cm 차로 다가서며 7회 연속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수립했다. 1m 88, 68kg의 우상혁의 상승세는 강도 높은 도약 훈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인 김도균(46) 감독의 지도 아래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20kg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 선수에게 과체중은 금물이어서 적게 먹는 소식의 식습관 유지 등에 유의하고 있다.

국내 육상 전문가들은 “우상혁이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기록(2m 43) 보유자인 카타르의 무타즈 이사바르심(34)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힘겨운 승부를 벌여야한다”며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자 등극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전망했다. [K]

동아시아 축구 안방서 일본에 분패

홍명보 감독 ‘자화자찬’에 눈총

“오늘 우리 선수들은 준비한대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결과도, 실점 장면도 아쉽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수들이 이번 소집에 와서 보여준 자세 등이 훌륭했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숙적 일본에게 0대 1로 져 우승컵 탈환에 실패한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의 소감은 의외였다. 한국은 손흥민·김민재·이강인 등 주전이 빠진 15군이었지만 일본 역시 유럽에서 활약중인 50여 명의 주전선수들이 모두 빠진 3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홍 감독의 소감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3연승으로 대회 2연패 겸 통산 세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여전히 5회 우승으로

이 대회 최다 우승국이지만 2회 연속 일본에 우승컵을 내주었다.

한국은 손흥민 등 유럽파가 빠졌다고 해도 정예 멤버가 많았다. 부동의 수문장 조현우를 비롯해 풀백 이태석, 김문환 등 수비라인은 주전급이었다. 중앙수비수 김주성, 공격수 주민규, 오세훈, 이동경 등도 월드컵 본선에 나갈만한 선수들이다.

반면 유럽에서 뛰는 선수만 50명이 넘는 일본은 J리그 정예들이 나왔지만 월드컵 본선에 갈 만한 선수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잘하는 선수가 많아 한국보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사커 크리티크’는 지난 17일 “한국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리며 득점왕에 오른 저메인 료는 구보 다케후사 등 해외파가 합류하면 대표팀에 낄 자리가 없다. 조현우를 밀어내고 대회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된 오사코 케이스케도 일본 월드컵 대표로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남자부 최종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이호재(가운데)가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뽑힐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3도움을 올려 일본의 우승에 기여한 소마 유키는 “동아시아컵과 월드컵은 완전히 다른 대회다. 솔직히 나 자신도 월드컵 출전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1.5군, 일본 3군에게 완패

이번 대회에서 전반전 내내 일본에 주도권을 내준 한국은 후반전 볼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세밀함이 매우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슈팅수

에서 9대3으로 앞섰으나 유효 슈팅은 1개에 불과, 한국이 우세한 경기를 했다는 홍명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 기용될 선수가 거의 없는 3군인데도 한국의 1.5군을 이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그간 일본에 우세를 보였던 피지컬과 스피드도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축구를 잘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K]

〈이종세·본회 부회장〉

성장과 분배 성공 ‘한강의 기적’ 이뤘다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①

현대 한국사에서 건국의 시점에 대한 논쟁, 민주주의와 독재, 시장·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첨예한 이념적 대립 요소이다. 소위 우파는 1948년 8.15 건국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이념에 입각한 대한민국 역사를 정통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거나 이를 동경해온 좌파 세력은 한국은 상해 임정에서 출발하였고, 건국 이후 우파는 독재정치로 한국 역사를 강점하였다고 주장한다. 좌파는, 또한 명시적 주장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소위 인민민주주의가 정통 민주주의라고 믿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로 이어진 건국과 개발연대를 반민주 독재시대라 폄하하고 그동안 한국이 이룬 번영의 부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물론 경제 번영의 대통령 박정희는 이런 좌파들의 ‘독재자 프레임’에 갇혀 공식적 초중등교육이나 대학의 강의에서조차도 그 업적이 올바른 평가를 못 받고 극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에 ‘대한언론’은 오늘날 선진국 문턱에서 ‘평등 민주주의’ 함정에 빠져 ‘선진국병’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 실패 현상을 노정하고 있는 현실을 심층분석, 연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재는 오늘날 세계와 한국이 처한 선진국병의 해법이 바로 박정희 한강 기적의 비법에 있음을 구명(究明)함으로써, 박정희 시대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불치병을 치유함과 동시에 인류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좌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박정희 시대가 이끈 한국의 1960~80년대 소위 개발연대는 당대는 물론 세계 경제 발전사에 있어 최고의 포용적 동반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시대의 성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 실현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외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인색하거나 인정하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가 성공했지만, 특혜로 재벌을 지원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했다고 폄하한다. 오늘날 산업 대국의 바탕이 된 중화학공업과 전략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경제 기적이라 하지만 정치적 독재와 장기 집권으로 이룬 성공이라 값어치가 없다고 비판한다. 뒤를 이어 ‘정의 사회구현’을 기치로 내건 5공 정부도 박정희 시대가 정의롭지 않다고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이런 비판적 인식은 대부분 당시의 경제적 사실에 대한 무지(無知)나 왜곡, 혹은 세계 경제 발전사나 경제발전 원리에 대한 통찰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요약하면 박정희 시대에 대한 한국 지식인사회의 거부감은 큰 특혜로 재벌을 육성해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

했으며,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대기업을 불평등의 원천으로 보는 좌파나 재벌을

독점과 경제력 남용의 주역으로 여기는 시장 중심사상을 신봉하는 우파도 박정희를 환영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보편적 정치체제로 여기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냐를 불문하고)소위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당연히 한목소리로 박정희를 거부한다. 이래저래 박정희는 공교롭게도 이념적으로 좌·우파 모두로부터 배척되는 운명에 처해있다. 설령 그 시대의 놀라운 업적에 압도되어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학자든 일반 국민이든)이런 관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말하자면 박정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소극적 평가에 그치고 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독재는 안 했으면, 그리고 재벌은 안 키웠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에 삼페인을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

한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 실현 밑거름 위대한 업적에도 좌·우파 모두 평가절하

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단서를 다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 정치·경제학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박정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그의 정치가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할 뿐 그의 성공 요인에는 무지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까이에서 그를 도운 참모들마저도 유신은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 한다.

한국 경제학계는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느라고 자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한다. 그냥 수출이나 지원하고 시장에 맡겨 비교우위에 따라 수출기업이 성장하도록 하지, 정부가 중화학공업화 한다고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했다고 한다. 그래

서 5공 정부와 세계은행도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강의 기적은 자원배분을 왜곡한 결과라는 기상천외의 주장을 하는 셈이 되었다.

이런 주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세계의 보편적인 (신성불가침의) 국가 운영 원리에 도전한 박정희의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치와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수용하기 어려운 주류 정치·경제학의 당연한 추론이기도 하다. 국내외 학계에 박정희의 기적이 온전히 설 땅은 없어 보인다. 이게 그동안 박정희는 새로 연구할 가치도, 해외에 전수할 가치도 별로 없는 일회성 돌연변이 현상처럼 치부되어온 배경이다. [본문]

줬다 빼앗는 청와대 ‘구중궁궐’ 돼선 안된다

필자는 노태우 정부의 말기였던 1991년에서 92년 사이 1년 남짓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때의 짧은 인연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관한 글을 두 번 썼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집무하겠다는 약속을 깬 때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탄핵 논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먼저 글의 제목은 ‘청와대 집착, 권력중독증 아닌가?’였고, 나중 것은 ‘청와대는 죄가 없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대선공약에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자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청와대에 눌러 앉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에서 시해당하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살한 일들이 겹치며 미신에 관심이 없는 필자도 부지불식간에 청와대의 터가 나빠서 그렇다는 풍수가들의 얘기에 귀가 솔깃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고 직무를 청와대 밖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파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런 결단이 아니면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 청와대일지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휴지실에 침취해 안 들어간다는 말도 들려왔지만 아무려면 그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불운이 깃든 청와대를 나왔으니 용산 대통령실의 앞날이 순풍이길 바랐으나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부부가 재판과 특검 대상이 됐으니 이전 어느 대통령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둔 운명입니다.

이것으로 확실해진 것이 있다면 청와대가 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의 제목이 ‘청와대는 죄가 없다’로 된 까닭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청와대에서 발동됐다면 청와대는 휴지설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뻔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운은 집무실의 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잘못된 때문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첫날 나는 구중궁궐 이미지에 호기심 가득한



사진은 2022년 5월 개방 초기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던 청와대.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재사용을 결정한 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우려 속에 청와대 관람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 캡처>

대통령 집무실 최소화…시민공간 유지필요

눈초리로 전국에서 몰려온 관람객들과 함께 기자실이 있던 춘추관과 비서동을 살펴 봤습니다. 그 뒤로도 청와대 관람 후 곧장 북악산으로 오르는 등산도 몇 차례 하면서 청와대 개방이 잘 된 선택임을 실감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은 2022년 5월 개방 이후 급증 3월말 현재 710만 명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재입주를 발표한 이후 관람 신청이 급증 추세입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찾는 발길들이라고 하네요. 청와대의 정원들도 시민의 휴식과 전시, 공연 공간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현실론을 받아들여 용산에서 집무를 보다가 9월쯤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259억 원의 이사비용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과거의 예로 보면 이 비용은 그보다 훨씬 늘어날 공산이 큼니다.

청와대 재사용에 대해 일반인의 반응은 무덤덤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재입주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듯이 당당해 보입니다. 주었다가 빼앗는 것은 아바위꾼이나 하는 짓인데도 말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밀실 이미지의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해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것을 실천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대통령 집무실로 되돌아가면 청와대는 또다시 영구 밀폐공간이 되고 맙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나요? 다시 써도 괜찮겠느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쓰더라도 대통령 집무공간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민의 공간으로 내줘야 하지 않나요?

처음 공약했던 세종시로의 이전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의사당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시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아니었던가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의 청와대, 국회의사당과의 연락을 위해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돈과 시간, 행정의 비능률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길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도 청와대도 아닌 세종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대선 공약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미뤄, 대통령집무실의 세종시 이전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기껏 추진한다 해도 청와대를 본집으로, 세종시 집무실을 임시거처로 쓰는 두집살림 방식이어서 낭비요인만 커질 수 있죠.

청와대 면적은 7만5,000평으로 미국 백악관의 2만 1,000평의 3.5배나 됩니다. 연건평 면적도 7,562평 대 1,540평으로 5배나 넓습니다. 북악산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의 집무실에 비할 때 큰 편입니다. 청와대의 공간배치도 재고해 규모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뒤가 북악산으로 가려 있고 좌우도 산으로 차단된 지형이어서 남쪽에 가로로 나 있는 도로만 없으면 고립되는 지형입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지만, 그로 인해 청와대는 구중궁궐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과 유리되기 쉬운 청와대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 국민과 거리를 좁히는 방안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휴지설을 되살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임종건(본회 이사·전 서울경제 사장)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의혹 밝혀라



광복 80주년을 맞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나부끼는 현수막에 정체불명의 내용이 씌였다.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은 무엇이며 “6·3 한국대선 부정선거”는 또 무엇인가? 국제선거 감시단이 밝혀낸 것이라면 근거가 있을텐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일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 의혹을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규진 총괄부회장〉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 ‘리플리 증후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리플리 증후군’일 수 있다. 리플리증후군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에 쓴 심리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The Talented Mr. Ripley)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됐다. 소설 속 리플리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해오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받아들여 환상 속에서 살게 된다.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주연으로 1960년에 개봉돼 박히트를 친 영화 ‘태양은 가득히’는 다름 아닌 리플리증후군의 실체를 그려 보인 작품이다. 원작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를 각색 해 만든 것이다. 거짓말을 하다 전형적 범죄자로 발전한 리플리는 완전범죄를 구성하지만 마지막에 전혀 뜻밖의 실수 하나로 끝장이 나고 만다.

그런데 요즘 소설 주인공 리플리처럼 자신이 만든 허상을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우겨대는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기염을 토한다. 단순



‘태양은 가득히’ 주연 알랭들롱

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은 진리의 성취자인양 길길이 날뛰다. 사회적 성취욕은 지나치게 큰 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제한된 사람일수록 이 같은 문제를 겪기 쉽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의한 결과에 두려움을 가져보지 못한 것도 리플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라이어들은 이미 정권쟁취의 과실을 취득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성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미처 몰랐던 사람인데 요즘 모스탄이란 인물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79년 5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1.5세 한인이라는데 스펙을 보면 보통 인물은 아니다. 현재는 미국 역사상 2 번째의 한국계 미국인 로스쿨 학장이다. 2017년에는 시카고 한인회의 ‘올해의 한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이며, 그 배후에 중국공산당의 간부 왕후닝이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연루설까지 곁들였다. 그의 주장에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신빙성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심각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고도 했으나 내란 특검 측에 의해 저지되었다.

진실과 조작...언젠가 밝혀진다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 밖의 다른 국가에 특정한 문제가 존재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담 특사라고 한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직위를 떠났다.

그 모스탄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부터 파란을 일으켰다. 제

반대측에서는 모스탄의 그 실체가 없는 말, 말 그대로 ‘음모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메이저언론에서도 모스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짐작이 갈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 사이 유튜버 등 틈새언론들이 모스탄은 거짓뉴스 제조자이며 ‘구라쟁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밥먹듯하고 있는 것인가.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결말은 진실은 진실일 뿐 조작은 어떤 경로로든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다.☞

〈강이산·극작가〉

“인천시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실질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정상 차지

인천직할시 유정복 시장 인터뷰

“지난 3년간 많은 변화와 결실이 있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를 꿈꾸하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월 25일 대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주요성과와 향후 시정(市政)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가 네배 많은

경기도보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고 출생아 수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지역내 총생산(GDP)은 117조원(2023)으로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전국 1위일 정도로 인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대한민국 출생률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니까?

“제대로된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아이(i)시리즈’ 정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걸 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2006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표현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8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출산은 교육·경제·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폐란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원을 지원한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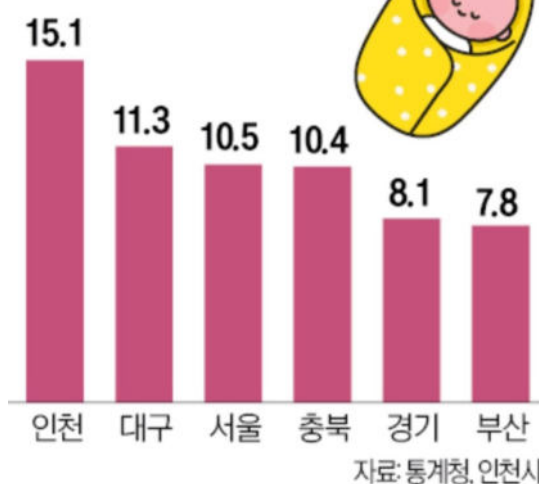
“정부의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정책은 미비합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 이후 각 가정의 지출부담이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사교육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등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탄생한 정책이 i시리즈입니다. i시리즈 1호인 ‘1억 플러스 드림’을 기존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한 출생정책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 난임 부부지원비, 결식아동급식비, 청년 주거안정지원금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면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 아이드림 정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4월 인천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월 인천 출생아수는 55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가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7.7%)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증가율

(단위: %) ※2025년 1~4월 기준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천시의 ‘아이(i)시리즈’ 정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육아·교육지원, 아까말한 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미혼남녀 소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온 덕택인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역점사업은?

“맞습니다,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무역지정과 아이모험단산업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항공정비산업 허브 조성, 수소·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노후산업단지 대개조와 계양테크노밸리 첨단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출생 정책 큰 효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등 추진

의 두배에 달하는 숫자지요. 출생아수 기준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2만5587명), 서울시(1만 5437명)에 이어 3위인 셈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정책은 언제 선보였나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지난해엔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천원주택’, 출산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비드림’ 등 실질적 혜택이 담긴 대책도 잇달아 내놨습니다.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미혼 남녀를 맺어주는 ‘이어드림’사업도 추진중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i드림에 이어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출생아는 물론 혼인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올해 1분기 인천시 혼인건수는 33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했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산단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은 대한민국 신성장거점으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또 있습니다. 영종·청라 공항경제권중심 K-콘텐츠랜드조성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화 ▲수도권매립지대체매립지조성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방과 동인천역 주변 개방을 골자로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지하철 순환3호선 건설 등도 해야 합니다.”

-2030년 글로벌 톱 10시티 인천이나 미래비전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각 구·군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전체의 균형발전과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병행합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1년을 결실의 시간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영 본회 회장〉

서평

이규섭 본회 전 사무총장 ‘허튼소리’ ‘三品팔기’로 일군 삶의 통찰

30여 년간 언론 현장을 누비며 한국 사회의 굵직한 흐름을 기록해 온 이규섭 본회 전 사무총장·편집위원장이 제2의 인생을 돌아보는 산문집 ‘허튼소리’(밥북, 320쪽, 2만원)를 최근 출간했다. 역설적인 제목과는 달리, 이 책은 거친 말과 조롱이 넘치는 시대에 침묵의 언어로 버려낸 ‘바른 소리’를 전한다. 기자로서 갖고 닦은 ‘글 품’, 강연과 방송에서 기른 ‘말 품’, 전 세계를 발로 누비며 얻은 ‘발 품’, 이른바 ‘삼품(三品)’의 기록이 책 전반에 진득하게 녹아 있다.

“퇴직 후에도 기록하고 소통한다”

‘허튼소리’는 저자가 일간지, 사보, 학보 등 80여 개 매체에 꾸준히 기고해 온 칼럼과 에세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회 현안, 일상 풍경, 사람살이의 의미를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시심으로 풀어낸 글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글쓰기의 도전 정신을, 은퇴 세대에게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사회 이슈를 해설해 온 저자는, 미디어 교육 강사로도 활약하며 전국 학교와 기관에서 신문을



활용한 창의력·비판적 사고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말발’의 경험도 책 속 곳곳에 배어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퇴직 후 버킷리스트로 ‘해마다 해외여행 한 차례’를 목표 삼아 42개국 159개 도시를 직접 답사한 여정이다. 영화 ‘로마의 휴일’을 따라가 본 로마, 전쟁의 상흔이 남은 ‘와이강의 다리’, 피카소의 정열이 숨 쉬는 지중해 도시 등, 세계를 누비며 수집한 체험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선 인문학적 통찰로 이어진다.

세상, 길, 추억 클릭… 3부 구성

책은 ▲1부 ‘세상을 클릭하다’ ▲2부 ‘길 위에서 길을 묻다’ ▲3부 ‘추억을 추억하다’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노인 복지, 언어 파괴, 공동체 소멸 등 현안을 날카롭고도 간결한 문체로 짚는다. ‘노노케어’의 실태, ‘물 전쟁’의 경고, ‘세종이 노(怒)할

언어 파괴’ 같은 칼럼들은 현실 감각과 문제의식을 동시에 담고 있다.

2부는 발로 쓴 여행의 기록이다. 인도 갠지스강에서 체감한 생과 사, 두바이의 두 얼굴, 이탈리아의 비움과 충만을 담은 힐링 여행기 등이 펼쳐진다. 저자 특유의 유머와 섬세한 묘사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3부는 가족과 고향, 언론인 시절의 추억, 국악에 대한 애정이 조용한 감동으로 이어진다. ‘아버지의 임종’, ‘민들레처럼 살다간 누님’, ‘아,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낸 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책에 담긴 글들은 “모진 말, 거친 말, 거짓말이 세상을 할컬 때, 침묵의 언어로 버려낸 문장에는 수목화 같은 담백한 향이 배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세상을 품는 통찰이 절제된 언어로 표현되어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박현수 본회 회우·연합뉴스 기자〉

이달의 시

다카야마 긴조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았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 한 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보통이를 들고

다카야마들

쫓겨가는 신작로 길로

내 이름이 걸어오는 걸 보았다

내 이름이 돌아왔다

영문 모르는 다카야마 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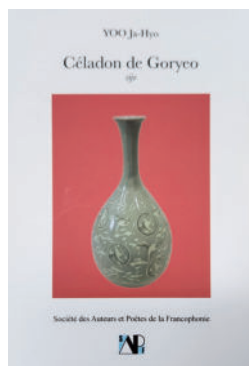
아 얼마만인가

내 이름이 돌아왔다.

최금녀 본회 회우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회우가 낸 새책

유자효 회우 ‘청자주병’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 제44대 회장을 지낸 유자효 회우의 시집과 시조집이 프랑스에서 출간되었다. 프랑스 시인협회에서 출판된 불역 시집 〈은하계 통신〉에는 자유시 70편이 수록돼 있으며, 불어권 작가 시인협회에서 출판된 한불 대역 시조집 〈청자주병〉(사진)에는 단시조 50편과 연시조 20편이 수록돼 있다. 장-샤를 도르즈 프랑스 시인협회 회장은 유자효 시에 대해 “깊은 휴머니즘과 범 지구적 우애 그리고 국경과 분파가 없는 인간애에 바탕하고 있다”며 “천의 얼굴을 가진 우주로 단숨에 독자를 끌어 들인다”고 평했다.

유 시인의 시집과 시조집은 지난 6월 파리 ‘시(詩)의 시장(市場)’에 전시돼 시인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한국어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에 공급되기도 했다. 두 시집의 번역은 주불 번역가 손미혜 선생과 장-피에르 쥐비아트 교수가 맡았다. 번역자들은 “유자효의 시를 읽으며 다양한 경험을 함께 했고 기쁨과 고통의 조화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인호 회우 ‘대한항공 오디세이아’



장 3대에 걸친 대한항공 경영철학을 촌철살인하고 회사 성장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저자는 조양호 선대회장에 대해 “조 회장은 공부하는 경영자였으며, 틈만 나면 ‘공부’를 외쳤다. 그 에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닿는 것 모든 것이 공부의 대상이었다”며 “항공과 물류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사(史)와 무기체계, 스포츠와 정보통신 기술, 여행과 사진에 이르기까지 한 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파고 들었다”고 회고했다. 저자는 이 책 출간에 앞서 〈삼성 오디세이아〉, 〈현대 오디세이아〉, 〈LG 오디세이아〉, 〈SK 오디세이아〉, 〈롯데 오디세이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저서를 연작 출간했었다.

오경자 회우 수필집 ‘눈먼 고기’

언론인 출신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오경자 작가가 수필집 ‘눈먼 고기’를 펴냈다. 물속을 헤엄치는 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 그럼에도 낚시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론가 강병욱 교수는 오 작가가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보편적인 삶의 진실과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오경자 수필집은 작가의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사유가 담긴 수필집이다. 각각의 단편은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작가의 시선을 통해 역사, 사회, 그리고 인간 본연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작가는 기억, 삶의 방식, 사회 변화, 역사적 사실,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개인의 존재론적 성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주제를 다루고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작가의 일관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그리고 사회를 향한 비판적 시선이 공통적으로 흐른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작가의 태도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수작들이다.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6.25 ~ 2025.7.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김영환A (2025) 30,000	한양인 (2025) 30,000
이규석 (입회비) 300,000	원종선(2025-2026) 60,000
이 선 (2025) 30,000	지정식 (2026) 30,000
류철희 (2024) 30,000	한영탁 (2022-2023) 60,000

언론가 소식

KBS 3년만에 신입직원 다수 공채

KBS가 3년만에 신입직원을 공채한다. PD, 기자, 영상제작(카메라), 아나운서, 방송기술, 방송경영, IT, 콘텐츠 등 방송과 비방송 13개 분야에서 신입직원 71명을 선발한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5%는 지역권으로 뽑는다.

신문협회, 정부광고 언론재단·코바코 2원화 반대

정부 광고 위탁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 이원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7월 23일 “정부 광고를 두 기관이 대행할 경우, 효율성과 공익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고, 공정 경쟁에도 저해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 광고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재단이 대행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사를 직접 접촉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언론재단이 대행해 주고, 수수료(정부 광고액의 10%)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신문·잡지 광고는 언론재단, 방송 광고는 코바코가 맡도록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바코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미흡’인 D 등급을 받았고, 최근 10년간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그룹, 지상파 3사 공정위에 제소

JTBC와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스포츠 중계권 공동구매를 비공개로 합의해왔다고 주장하며 지상파와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 포스터 공모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7월 24일 한국광고학회와 공동으로 공익광고 공모전 ‘2025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포스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공익광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공모전은 5개의 공공기관 캠페인 주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정보지킴이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캠페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 캠페인 주거안심전담반’ ▲질병관리청,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8월 10일까지. 9월 중 수상작 발표.

회 우 동 정

권혁승 회우 서예작품 본회 기증



권혁승 회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전 서울경제신문사장)는 지난 7월15일 본회를 방문, 자신이 제30회 시

계서화전에 출품했던 서예작품 ‘율곡이이건강십훈(栗谷李珥健康十訓)’을 기증했다. 이 작품은 본회 사무실에 현액됐다.

장석영 본회 회장, 서흥원 양구군수 예방

장석영 본회 회장은 7월 25일 박기병 명예회장, 이규진 총괄부회장, 박종서 전 사무총장과 함께 양구군청으로 서흥원 군수를 예방, 오는 9월 26일 양구문화원에서 열리는 본회 주최 세미나 행사 협조를 당부했다.

한영탁 회우 수필 ‘에세이21’ 게재

한영탁 회우(본회 자문위원·전 조선일보기자·전 세계일보 논설위원)가 쓴 수필 ‘거미의 독백’이 계간 ‘에세이21’ 2025년 여름호에 실렸다.



최명우 회우 신음악감상법 강의

최명우 회우(본지 편집위원장)는 8월 25일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씨웨이브 영상홀에서 한국 최고의 초대형 스피커시스템 시동과 함께 ‘신 클래식 음악감상법’을 강의한다(사진). 이번에 공개되는 이곳 스피커시스템은 높이 2.2m, 무게 1t이 넘는 알루미늄 단조 2세트 구성에 있으며 마치 경주 석굴암 같은 위용으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정밀한 음향을 들려준다. 시가 16억원 호가. 음악평론가이며 클래식 전문해설가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최 회우는 마니어는 물론 클래식 입문자에게도 감칠맛 나는 음악세계의 신비를 펼쳐 보인다. Tel 010-6477-4288



재난보호준칙 개정 추진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재난보호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박문두 회우 체육관계 사우 친목모임

박문두 회우(전 동아일보 사진부장)는 1970년 대 체육 분야에서 함께 뛰었던 동아일보 동료들의 모임을 결성, ‘초월회’라고 명명하고 매달 첫 월요일에 친목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현재 흥인근 원로회우(전 동아일보 이사·편집국장) 등 10명이 참가하고 있다.

산악회

첫 폭염 정보...삼천사 계곡 탐방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지난 7월 8일 서울에 첫 폭염 정보가 내려졌음에도 거르지 않고 북한산 삼천사 계곡(서울 은평구 진관동)을 찾았다. 13명 참가. 이날 예고된 기온은 36°C였으나 체감온도는 그 이상. 일행은 구과발역에서 7211번 버스를 타고 ‘하나고’에서 내려 숲길 속으로 목적지인 삼천사 계곡 맛집 ‘청솔’에 도착했다.

맛있는 오리백숙에 한잔 술, 그리고 시원한 수박으로 마무리했다. 일부 회원은 계곡에 내려가 발을 담그기도. 일행은 정담을 나는 뒤 하산길에 한옥마을 카페에도 들러 커피 대신 팔방수로 찜통더위를 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만보회(회장 최귀조) 모임을 8월 19일(화), 산악회 다음 모임을 9월 23일(화) 갖기로 했다.

참가자: 강두모 김성녕 김윤찬 김조영 박교원 박종서 설임윤 안종우 이우진 장옥 조명동 최귀조 황우연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튼튼하게
탄탄하게
돈돈하게

튼튼 탄탄 돈돈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돈돈하게

•스포츠 복지•스포츠 산업•올림픽 유산•체육인재 육성/지원•기금조성사업•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춘양구

양구 9경 구경갈새가



4경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3경 두타연



2경 한반도섬



1경 양구수목원



9경 광치계곡



5경 양구백자박물관



8경 상무룡 출렁다리



6경 편치볼



7경 양구 봉화산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www.ygtour.kr